

본회 주최, 제 10회 우수사슴선발대회 성황리 막내려

- 초월사슴농장 초월 1호 대상, 국내 공식 최고생산량 세워 -

본회가 주최한 제10회 우수사슴선발대회가 지난 7월23일 본회 회원 및 업계관계자, 내외귀빈 등 총 120여명의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.

녹용품질 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선도해 온 본회주최 우수사슴선발대회에는 올해 총 15두(엘크 9두, 꽃사슴 6두)의 우수사슴이 참가, 열띤 경합을 벌였다.

올해 영예의 대상에는 경기 광주 초월사슴농장(대표:이종필)의 초월 1호가 차지했다. 25.410kg으로 국내 공식 최고생산량을 기록한 초월 1호는 녹용생산량과 품질, 사슴개체 심사에서 두루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. 최우수사슴에는 충

북 보은 속리산사슴농장(대표:구권회)의 아시호, 대전 유성 우성사슴농장(대표:한은섭)의 우성 2호 차지했다. 꽃사슴부문 최우수사슴에는 서해록원(대표:윤동원)의 서해5호가 차지했다.

특히 올해 최초로 시행된 자록 우수사슴선발대회에는 엘크 1두 및 꽃사슴 3두가 참가해 시범 운영됐다. 자록 우수사슴 심사는 나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우수 사슴을 조기에 발굴,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미래의 우수사슴으로 양성할 수 있다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.

이날 행사 인사말에서 김은성 회장은 “오늘 같은 자발적 우수사슴 선발 행사는 우리 스스로 양육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한다”고 전제한 후 “국가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녹용시장을 둘러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키 위해선 단위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”고 말했다.

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각 부문 최고 점수를 획득한 사슴 4두에게 상아아그리텍에서 제공한 사슴전용사료(두당 1년치)가 부상으로 수여됐다. **한국양육**

